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문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새싹반 유아들의
요리활동에 관한 실행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고 순 정

새싹반 유아들의
요리활동에 관한 실행연구

이 문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고 순 정

인 준 서

고순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새싹반 유아들의 요리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혼합연령 중일반인 새싹반 유아들의 효율적인 요리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새싹반 요리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새싹반 요리활동의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종일제 학급인 새싹반이다. 연구는 2008년 10월 15일 부터 2008년 12월 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문제 파악을 위한 2회의 요리활동 후 문제점 개선을 위한 6회의 요리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연구의 과정은 문제 파악과 변화의 계획 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단계, 이러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반성) 단계, 수정된 계획에 의한 실천과 관찰 및 이에 대한 반성의 반복 단계의 실험연구 모형을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 사진과 비디오 촬영, 심층 면담, 저널쓰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어 해석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싹반은 혼합연령 중일반으로 요리 활동을 할 때 어린 연령의 유아들의 안전과 활동 안에서의 수준별 구분이 어려워 유아들이 직접 요리에

참여하는 부분이 적었다. 이로 인해 유아들은 요리 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교사가 제시하는 활동을 무의미 하게 따라하는 정도의 요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혼합연령의 수준별 활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요리 활동을 할 때 동일 연령으로만 소그룹을 구성하여 혼합 연령 간 교류가 적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하나의 반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요리 활동을 할 때 유아가 참여 하는 부분이 가능한 많도록 하였고, 유아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요리 활동을 제시 하였다.

둘째, 새싹반은 혼합연령의 유아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수준별 요리활동을 위해 소그룹 활동 시 연령별로 모으던 것을 혼합연령으로 소그룹을 구성하였다. 혼합 연령의 유아들이 서로 경험을 함께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유아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 지고 유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으로 진행되는 요리를 할 때에도 나이 많은 유아들이 어린 유아들을 도와주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줌으로써 새싹반의 유아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요리 활동을 계획하였다.

셋째, 새싹반의 요리활동 진행 과정에서 유아들은 나와 다른 유아와의 차별성도 인식하고 자신의 모듬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며 함께 하는 활동을 매우 즐거워하였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나이 많은 유아는 더욱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 유아들은 나이 많은 유아를 “꼬마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생겨 자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발달이 조금 느린 같은 연령의 친구에게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공하게 하였고, 연구가 조금 더 진행될수록 한

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며 함께 어우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요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요리한 것을 간식으로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새싹반 유아들은 요리를 하며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공감할 수 없는 새싹반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자	5
II. 이론적 배경	9
1. 종일반	9
1) 종일반의 개념 및 운영 형태	9
2) 종일반 학급의 특성	11
3) 종일반 교사의 역할	14
2. 요리활동	16
1) 요리활동의 교육적 의의	16
2) 요리활동에서의 교사의 역할	20
3. 선행연구	21
III. 연구방법	25
1. 연구 참여자	25
2. 연구 절차	28
3. 자료 수집	30
4. 자료 분석	33

IV. 연구 결과	34
1. 새싹반 요리활동의 문제점	34
1) 어린 유아를 배려하지 못한 요리 활동	34
2) 혼합연령 유아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요리 활동	35
2. 새싹반 요리활동의 개선 방안	38
1)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요리 활동	39
2) 혼합연령 유아들이 함께하는 요리 활동	39
3. 새싹반의 변화과정	41
1) 우리가 만들어요	41
2) 함께하면 좋아요	44
3) 우리는 새싹반 요리사	52
V. 논의 및 결론	57
1. 논의 및 결론	57
2. 제언	62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새싹반 유아들	26
<표 2> 새싹반 하루 일과	28
<표 3> 새싹반 요리 활동 계획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취업 증가와 더 많은 교육적 경험을 위한 조기교육의 일환으로 유아들은 일찍부터 가정을 떠나 기관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에 유치원에서의 종일반 운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종일반에서 유아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면서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질 높은 종일반 운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유치원에서 종일제 학급이 시범 운영된 이래 교육부에서도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하고 있다(경원대학교 교육과정 연구 위원회, 1999). 이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참여도가 증가하며,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로 인해 더 이상 자녀양육의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전여옥, 2004). 또한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모들은 유아의 발달을 지지하고 더 많은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종일제 운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이성은, 1997). 이러한 사회 변화는 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1960년대 이후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를 위한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에서 보다 폭 넓은 계층을 위한 양질의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2년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종일제 운영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부터는 지역 특성, 유치원 실정, 교육적 필요 등에 따라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법령을 재정하고 오후 프

로그래를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0).

종일제 학급은 교육대상 연령 집단 구성에 의하여 동일 연령 집단과 혼합 연령 집단으로 운영될 수 있다. 동일 연령 집단의 종일반은 만 3, 4, 5세 유아들을 각 연령별로 한 학급을 구성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0). 동일 연령 집단의 장점으로는 유아들의 발달 수준이나 요구가 유사하고 또래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교사의 지도에 발달적 편차가 크지 않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0). 그러나 또래간의 경쟁심으로 인해 정서적 긴장감이 생길 수 있고, 개인차를 수용하기 어려워 발달이 빠르거나 늦은 유아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임재택, 1992), 나이 많은 유아나 나이 어린 유아가 함께 있으므로 얻을 수 있는 학습기회를 놓칠 염려가 있다.

혼합연령 집단의 장점은 먼저 유아들의 상호작용과 서로 돕는 협동의 유익함을 극대화시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하루 종일 집단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가정과 같이 안락하고 편안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이 사회, 정서, 언어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며, 나이든 유아나 나이 어린 유아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주고받는 바람직한 방법과 태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또, 교육과정 운영을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과 오랫동안 격리되는 경험으로 인해 유아의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일반 집단 구성은 단일연령으로 구성되기보다 혼합연령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정미라 외 2000).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종일제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일제 교육활동 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유치원의 상황에 맞도록 재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오후 활동은 각

연령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선정,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종일반 프로그램은 오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되 오전에 비해 보육 활동 중심의 편안한 활동으로 운영한다. 이에 많은 유치원에서는 자연 체험, 전통 문화, 명화 감상, 창의 놀이, 색종이 접기, 동극, 과학 활동, 신체활동, 요리 활동,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경기도 교육청 장학자료, 2006).

이 중 요리 활동은 유치원에서의 다른 활동들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맛벌이 부모로 인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지 못하는 종일반 유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여 많은 종일반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요리 활동이 다양한 과학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각을 통해 직접 조작함으로써 구체적인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Walsh, 1980). 또한 Macfee(1974)는 요리 활동이 유아들에게 감각적 경험, 운동기술, 언어, 읽기와 쓰기, 수학, 과학, 인지적 개념과 사회, 정서 발달을 통합으로 돕는다고 하였다. Rudolph(1973)는 유아는 요리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보고, 만지고, 썰고, 끓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직접적인 조작과 실제적인 경을 하게 되며, 그것이 간단한 형태의 요리일지라도 학습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요리 활동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요리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요리 활동에서 교사의 탐구 - 발견 중심의 질문이 유아의 과학적 과정기술과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자현, 2004), 요리 활동 전개 방법과 유아의 과학적 탐구 능력 및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희영, 2005), 텃밭 가꾸기를 통한 요리 활동이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와 과학적 탐구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한상경, 2005), 통합요리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이신숙, 2006) 등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요리활동이 과학 개념과 과학적 태도, 영양지식 개념, 과학적 문제 해결력을 증가시키는 가치 있는 활동임을 증명해 주고 있으나, 활동 안에서 유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활동하는지 그 과정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또한 많은 연구가 만 5세 중심이며, 단일 연령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혼합연령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종일제 학급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종일제 학급 운영 실태 분석(배지희, 2005; 이문옥, 2004), 종일제 학급에서의 유아행동의 특성 분석(장영숙, 2005), 종일제 학급 유아들의 스트레스 연구(김윤희, 2003), 종일제 프로그램 연구(이한영, 2005)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종일제에 관한 연구에서 큰 특징인 혼합연령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종일반인 새싹반 유아들이 요리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는 과정을 연구해 봄으로써 종일반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인 요리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새싹반 유아들의 요리활동에 대해 연구해 보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1. 새싹반 요리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새싹반 요리활동의 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3. 연구자

본 연구자인 새싹반 담임교사는 3년차의 교사로 신규 교사 때 종일반 담임을 한 경험이 있으며, 두 번째 해에는 반일반을 맡았다가 3년째 되는 해에 다시 종일반을 맡게 되었다. 처음 종일반을 맡았을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종일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먼저 종일반의 경우 반일반과 확연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마음가짐이 종일반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많은 소외감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 종일반을 맡는 일년 동안 많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첫 발령을 받아 종일반 담임을 맡게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종일반은 내가 생각하던, 그리고 내가 꿈꾸던 반 운영과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동료 교사들과 수업시간이 달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과 내 교실이 없다는 점이였다. 반일반이 수업하는 시간에 종일반 담임인 나는 혼자 원무실을 지켜야 했고, 반일반 교사들이 수업을 끝내고 원무실로 들어올 때 나는 종일반 수업을 위해 교실로 향해야 했다. 동료 교사들과 의사소통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적인 운영에 혼자 외톨이가 되는 느낌이었고, 교실이 없어 바구니 두 개를 짊어 들고 다녀서 내 별명은 보따리장수였다.

또 한 가지는 종일반 유아들의 몸과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일반 유아들은 반일반에서 많은 활동으로 인해 휴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유아들에게 대집단 활동이나 오랜 집중도를 요하는 활동 등 부담스런 활동을 제시한다면 활동조차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종일반의 유아들의 경우 반일반에서 많은 활동을 접해 봤기 때문에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아니면 흥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반일반과 연계하되 중복되거나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반일반과 동일한 생활주제를 진행함에 있어 좀 더 새로운 활동을 생각해 내는 일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모두 반일반에서 하고 온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정말이지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종일반은 학부모들의 인식이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인식으로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기타 학원, 또는 보육시설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일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입·퇴원이 매우 잦아 반 아이들이 수시로 바뀌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렵고 매우 산만한 분위기이다. 한 아이를 파악하고 다가갈만 하면 종일반을 그만두고, 학기 중간 중간 종일반에 들어와 기존에 종일반을 계속 하고 있는 유아들에게는 더 이상 알려줄 필요도 없는 교실의 약속이나 질서 등을 다시 알려 줘야 한다. 또 학부모들도 반일반 교사에게 대하는 것과 종일반 교사에게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나도 같은 교사이고 담임인데 누구에게는 교육적인 상담을 의뢰하고 누구에게는 단순히 방과 후에 아이를 맡기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과연 내가 교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가 됐다.

그래서 다시 종일반인 새싹반을 맡으면서 지난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들에게 편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썼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교사가 하나 되어가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유아들의 활동 선정에 있어서는 반일반보다 유아의 흥미와 관심의 비중을 더 많이 두어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유아들이 부담 없이 종일반에서의 생활이 즐겁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종일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중 하나가 바로 간식문제이다. 요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매우 예민해 하는 사항이다. 또, 유아들의 아토피도 늘어나 간식을 준비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립 유치원 종일반의 문제점 중 하나가 조리시설의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질 높은 간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에게 매번 봉지 과자와 음료수만 줄 수도 없고, 조리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안전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교사 혼자 간식 만들기에 열중할 수도 없다. 그래서 종일반 교사로 있으면서 가장 큰 소망이 우리반 아이들에게 당일 요리한 음식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평소 유아들의 요리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요리활동이야말로 유아들의 발달에 매우 적합하며, 다양한 탐구 능력 및 사회·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나는 매주 한번은 유아들과 함께 요리활동을 하여 간식문제도 해결하고 혼합연령 종일반 유아들이 함께 어우러질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새싹반의 간식은 학기 초 종일반 학부모 협의회를 통해 간식의 메뉴를 선정하였다. 학부모 협의결과 월요일과 금요일은 떡류, 화요일에는 요리 활동, 수요일에는 계절 과일, 목요일은 유제품(예: 우유와 함께 먹는 씨리얼, 떠먹는 요쿠르트 등)이 선정 되었다. 이렇게 학부모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매주 요일별로 간식의 종류가 정해지고 나니 매번 간식의 메뉴를 선

정해야 하는 고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학부모 역시 간식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매주 화요일에 실시된 요리 활동은 학부모들이 제일 좋아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유아들과 함께 요리활동을 하던 중, 혼합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요리활동을 하는 것이 다른 활동을 수준별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요리활동을 하며 유아들의 흥미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요리 활동을 통해 새싹반 유아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종일반

1) 종일반의 개념 및 운영 형태

유치원 종일반은 증가하는 취업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기능과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의 제공이라는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언어적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상적인 보호와 기본생활습관의 형성 등에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다(이기숙, 1990).

종일반 운영은 운영의 시간이나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유아교육법 제 12조 2항에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종일반 운영에 관한 정의를 보면 자녀를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 시간을 다양화 하여 1일 3시간 이상 5시간미만의 반일제, 5시간 이상 8시간미만의 시간 연장에, 8시간 이상의 종일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의 수업과정으로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종일반은 학급 구성 및 운영에 의하여 독립 종일반과 오후별도 종일반으로 운영될 수 있다. 독립 종일반은 독립된 학급으로 구성되어 유아들이 오전 등원시간부터 오후 귀가 시간까지 동일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하루 일과를 보내도록 운영되는 것이며, 오후별도 종일반은 오전에는 반일반

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학급에서 반일반의 담임교사와 오전 일과를 보내고, 오후에는 종일반에 참여하는 유아들로 별도의 종일반 학급을 구성하여 오후 일과를 보내도록 운영되는 것이다(윤기영, 1993).

종일반은 학급의 교육 대상 연령 집단 구성에 의하여 동일 연령 집단과 혼합연령 집단에 의한 학급으로 운영될 수 있다. 현재 종일반 운영은 오전에는 동일연령집단의 반일반에서 지내고 오후에는 종일반이 필요한 유아들만을 모아 혼합연령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각 연령집단 구성의 장,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연령 집단 구성의 장점은 유아의 능력 및 발달 수준이 비슷하므로 학급활동의 계획과 지도가 용이하며 비교적 경험이 적은 교사라도 쉽게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또래간의 경쟁심으로 인해 정서적 긴장감이 생길 수 있고 개인차를 수용하기 어려워 발달이 빠르거나 늦은 유아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나이 많은 유아나 나이 어린 유아가 함께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학습기회를 놓칠 염려가 있다. 혼합연령집단 구성은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다르나 만 3, 4, 5세 혼합반이나, 만 4, 5세 혼합반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혼합연령 집단의 장점은 유아들의 상호작용과 서로 돕는 협동의 유익함을 극대화시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루 종일 집단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가정에서와 같이 안락하고 편안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이 사회, 정서, 언어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것이다. 나이든 유아가 나이 어린 유아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주고받는 바람직한 방법과 태도에 대해 알도록 한다는 것이다.

2) 종일반 학급 특성

(1) 단일연령으로 구성된 종일반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은 학급의 교육 대상 연령 집단 구성에 따라 동일 연령 집단과 혼합연령 집단으로 운영될 수 있다. 동일 연령 집단의 종일반은 만 3, 4, 5세 유아들을 각 연령별로 한 학급을 구성할 수 있고 각 연령별로 발달에 적합한 동일 연령 집단의 교육활동을 원하는 유치원에서 계획하여 운영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0). 동일 연령 집단 종일반은 유아들의 발달 수준이나 요구가 유사하여 또래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교사의 지도에 발달적 편차가 크지 않도록 운영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능력 및 발달 수준이 비슷하므로 학습 활동의 계획과 지도가 용이하며, 경험이 적은 교사도 아동들을 쉽게 지도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아 상호간에 충돌과 좌절의 경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에서 느낄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없으며, 또래 간 경쟁심으로 인해 정서적 긴장감이 생기고, 제 연령의 평균 발달 수준에 맞추어 교육내용을 계획하므로 자기 연령보다 발달이 빠르거나 느린 유아에 대한 배려가 어렵다(임재택, 1984).

(2)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종일반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은 유아의 연령과 운영시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의 종일반은 오후별도 종일반의 형태로 혼합연령 종일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원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9; 김현희, 2003). 연령별 집단 구성 방식으로

봤을 때 혼합연령 집단구성이 많은 이유는 단일연령으로 한 학급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미라, 2000). 그런데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종일제 학급의 형태는 혼합연령 집단으로 구성된 독립된 종일제 학급이다. 그 이유는 연령 차이가 있는 유아들 간의 상호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유아들에게 또래 집단의 경쟁 관계보다는 형제나 가족적인 집단의 협동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령이 많은 유아들은 어린 유아들을 도와주고 양보하는 역할을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린 유아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 주는 기회를 통해 지식과 능력을 정교화하고 확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어린 유아들은 연령이 많은 유아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사전 지식과 경험을 가지게 되고 연령이 많은 유아들의 인지 및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종일제 학급을 독립된 하나의 학급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는 오전과 오후 활동 간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0).

혼합연령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유아들의 인지 발달 및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먼저 인지 발달 측면을 살펴보면 혼합연령 집단에서 인지적 성숙 수준이 다른 유아들 간에는 인지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조절과 동화의 과정을 통해 인지적 성장이 촉진된다. Vygotsky는 근접발달지역 내에서 유아들이 상호작용할 때 인지적 재구조화와 새로운 이해가 내면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혼합연령 학급에서는 나이가 많은 유아가 어린 유아에게 더 높은 인지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비계설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령의 유아들이 서로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도움을 주고 협동을 하면서 인지적 발달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조재현, 2003). 혼합연령 학급에서 학습

의 경우 나이가 많은 유아들은 그들이 이미 배워서 아는 것들을 작은 아이에게 보여주거나 가르쳐 주는 행위를 통해서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폭 넓게 보는 안목을 키우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 스스로도 많은 자극을 받게 된다. 즉,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의 차이점,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차이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함으로써 유아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능력이 향상된다. 이와 반면에 어린 유아는 나이가 많은 유아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성인으로부터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 어린 유아들의 경우 나이가 많은 유아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돕게 된다(이명환, 2005).

혼합연령 학급은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연령 집단에서의 유아는 제한된 어휘만을 가지고 독백을 하게 되며 말의 변화를 거의 시키지 못하고 언어 확장에 있어서는 어른들에게만 의존하게 되는 반면에 혼합연령 집단에서는 어린 유아가 나이 많은 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며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한다(한금희, 1997). 또한 동일연령 사이에서는 경쟁적 언어가 더 많이 나타났고 혼합연령 사이에서는 명령적 언어와 요구 응답 언어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청자가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단정적인 언어와 제안하는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 반면, 청자가 자신보다 윗 연령인 경우에는 묻는 말과 허락을 구하는 말을 많이 구사하며, 청자가 동일연령일 경우 자신의 정당성과 권리를 주장하는 단정적 언어와 경쟁적 언어를 많이 구사한다(남명자, 1994).

또한 혼합연령 집단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혼합연령 집단은 단일연령 집단에 비해 협동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며(Elkind, 1986; French, 1984), 여러 연령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결과 사회적 기술이 증가하고 또래와 놀이 상대의 사회참여 패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도 증가하게 된다(Brownell, 1990). 또한 혼합연령 집단에서 좀 더 큰 유아들은 돌보기 행동, 의사소통 기술, 지적 기술이 발달되면, 나이가 적은 유아들은 사회적 경험을 거치는 동안 보다 성숙해지도록 격려된다(Roopnarine & Johnson, 2000). 또한 나이가 많은 유아들의 경우 어린 유아들과 함께 활동하려면 어린 유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어야 하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모여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협동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했으며, 사회적 기술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1997).

3) 종일반 교사의 역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교사이다. 교사는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일반의 교사는 유아와 하루의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시간 부모와 떨어져 있는 종일반 유아들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이문옥, 2004). 따라서 종일반 교사는 교육자 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과 신체 리듬을 고려할 줄 아는 즉, 엄마의 마음을 가진 보호자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과 고민을 안겨준다.

한국어린이육영회(1990)에서는 종일제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역할은 유아들의 학습을 돕는 조력자, 유아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지원자, 유아가 보고 배우는 동일 대상자, 유아

의 발달과 성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평가자 등 그 역할이 다양하다. 결국 유치원 종일반의 교사는 기본적인 교사 역할 이외에 유아교육에 소신이 있고 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격적으로는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아야 하며 항상 전문인으로서 연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유현정, 2006).

이처럼 종일반 교사는 전문가로서의 교육자의 역할을 위해 유아들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등 전인적인 발달과 흥미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수행, 평가하고(박은혜, 200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물리적 환경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0). 또한 교사는 아동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해, 개인차, 사회, 문화적 맥락에 기초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선택, 결정하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김혜진, 2005).

또한 사회적 모델의 역할로 교사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모델이 되어 유아들이 교사를 관찰함으로써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실제적인 기술과 태도들을 학습하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0).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사회 지식, 태도, 믿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적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종일반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에게는 교사의 삶의 양식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가 일상적인 상황, 삶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는 중요하다(양승옥, 이영자, 1991).

이 외에도 종일반 교사는 양육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이문옥, 2004). 유아들이 오랜 시간 유치원에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가우데, 전인 발달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가정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유아를 애정 어린 태도로 대함으로써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정미라, 2000).

2. 요리 활동

1) 요리 활동의 교육적 의의

요리활동은 유아들에게 오감을 사용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활동으로 성취감과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해준다. 또한 요리활동을 하며 요리 종류의 선택에서 재료의 구입, 재료의 탐색, 음식 만들기, 그리고 맛보고 정리하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통해 신체, 언어, 수, 과학, 사회 등 모든 영역이 통합된 경험으로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게 할 수 있다(오영희, 2002). Dahl(1998)은 요리활동을 이상적인 프로젝트활동이라 정의하며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하는 많은 영역들 즉, 읽기, 쓰기, 그리기, 수, 과학, 다문화 교육, 창의적 표현 활동이 포함되고 사회적 기술과 독립성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혜실(1984)은 유아들에게 요리활동이란 매우 흥미 있는 일 중의 하나로 유치원 생활에 적응과 흥미를 높여 준다고 하였으며, Hildebraand(1981)는 유치원에서의 활동 중 부모가 유아에게 가장 많이 전해들을 수 있는 것이 음식과 요리에 대한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 Walsh(1980)는 요리활동을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가증성이 가장 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으로 제시하였고, 물리적 지식을 강조하는 Kamil와 Devries(1978)의 구성주의 프로그램에서도 교실에서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요리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Herr & Morse(1982)는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요리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Mcafee(1974)는 유아가 상품의 가격표, 요리표, 상표 등에서 글과 숫자를 배

운다고 하였다. 또, Harlan(1980)은 과학교육이 여러 영역과 통합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예로 요리활동을 들고 있다. 이처럼 요리활동은 신체, 언어, 수, 과학, 사회 등 모든 영역이 통합된 활동으로 유아들에게 즐거움과 많은 교육적 가치를 주는 활동이다. 이에 요리활동이 주는 교육적인 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리는 오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감각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요리의 과정에서 유아들은 음식물의 변화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재료를 만져 보면서 질감에 대해 느끼기도 하고 재료들을 썰면서 나는 소리나 요리 종류에 따라 익는 소리도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요리 활동은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감각적 개념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준다(Macfee, 1974).

둘째, 요리활동은 유아의 언어적 발달도 돕는다. Macfee는 요리 활동을 통해 유아가 음식물, 도구의 이름과 형태, 요리과정의 이름과 범위, 문장의 사용과 뜻을 배운다고 하였다. 또한 요리와 관련된 상품, 사용설명서, 요리표는 유아의 읽기, 쓰기에 대한 기술과 태도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며, 요리 활동을 계획하고 토의하고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조리표를 읽으며 언어 발달이 촉진된다(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1989). 요리법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요리표는 유아로 하여금 읽으려는 내재적 욕구를 일어나게 할 뿐 만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모양을 만들지 등 많은 생각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김혜실(1984)은 요리 활동이 유아의 언어 발달에 효과적인 것은 읽기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요리활동은 사물에 대한 이름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요리표를 통해 유아에게 읽기에 대한 기회를 줌으로써 언어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요리활동은 유아에게 수학적 발달을 이루게 한다. Macfee(1974)는 유아가 상품의 가격표, 요리표, 상표 등에서 숫자를 배울 수 있으며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사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에 대해 배운다고 하였다. 또한 손자옥(2002)는 요리 활동의 모든 과정은 수학적 개념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요리활동 중에는 수세기, 더하기, 나누기, 측정하기, 숫자 읽기, 일대일 대응 등을 사용할 기회가 많다. 요리활동에서의 수학적 개념은 구체적이고 즉시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요리 순서도에서 재료의 양과 실제로 유아가 사용한 재료의 양과 일치하지 않으면 요리하는 도중에 또는 요리한 음식을 먹을 때 유아들은 착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리 종류는 유아가 실제로 측정하고 수세기를 할 기회가 많은 것을 선택해야한다. 요리활동은 이러한 수학적 개념학습이 구체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아주 효과적이다.

넷째, 요리활동은 유아에게 과학적인 발달도 이루게 한다. Harlan(1980)은 요리활동을 과학개념을 수립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예를 들고 있다. 요리활동은 유치원에서의 다른 활동들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활동이며, 다양한 과학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순자, 1986). 유아는 요리를 하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실제로 볼 수 있다(Jasobson, 1987). 요리는 물질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마가린, 얼음, 아이스크림은 가열하면 녹지만 달걀, 반죽 등은 가열할수록 단단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cfee(1974)는 유아가 배울 수 있는 과학적 개념으로 정확한 측정과 시간, 능숙한 도구의 사용, 주의 깊은 관찰과 질문, 예측, 평가, 분류, 문제 해결, 실험, 확인, 시행착오와 수정, 원인과 결과 등 과학에서 사용되는 과정을 배운다고 보았다. 이때 유아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부분적 지식을 얻

을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요리 활동은 유아가 직접적인 조작과 실제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간단하고 사소한 요리일지라도 인지 발달에 있어 좋은 경험을 제공하며 유아들이 직접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손자옥, 2002).

다섯째, 요리활동은 유아에게 사회·정서적인 발달을 이루게 한다. 요리활동을 통해 유아는 차례를 기다리고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즐겁게 먹는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도록 배우며, 함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서로를 돕는 것과 같은 경험은 요리활동이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배움이다(Macfee, 1974). 또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돕는 경험은 유아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집단 토의, 계획 등의 과정을 통해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특별하고 필요하다고 느낀다. 비록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Harlene Galen, 1977). Garner(1988)는 요리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Horse는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요리 활동은 유아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요리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협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요리활동은 유아에게 수학적, 과학적 개념의 인지 발달은 물론 읽기를 포함한 언어발달을 도우며, 긍정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켜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도 기여하는 등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높은 활동이다.

2) 요리 활동에서의 교사의 역할

교사의 교육관이나 아동관, 교육의 목적에 따라 환경 구성, 교수자료, 교수 내용, 교수 방법 그리고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의 본질 등이 달라질 수 있다(이정환, 1999). 따라서 요리활동에 있어서도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요리활동을 할 때 교사는 유아를 요리에 직접 참여시켜야 하고, 해답을 주기 보다는 유아들이 요리 과정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유아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뒷정리 역시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요리활동 과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Cosgrove, 1991). Dahl(1998)은 요리를 할 때 교사는 간단한 요리법을 찾을 뿐 아니라 한 가지 재료라도 다른 분량이나 온도 조절 등을 통해 다양한 요리법으로 무한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직접 재료를 측정하고, 혼합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게 해야 하며,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요리과정에 끼어들지 않고,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유아들의 활동 과정에서 질문하고 유아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2001)과 교육과학기술부(2004)에서 제안하는 요리활동전개 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리활동 계획 시에는 유아의 연령과 발달 적합성을 고려하고 각 유아의 음식에 대한 기호와 알레르기를 파악하여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유아와 함께 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요리 활동을 선택하고 요리재료 및 도구를 준비하고 요리 순서표를 만들도록 한다. 또한 요리에 참여할 유아들의 집단의 크기를 정하고 조리형태의 난이도에 따라 요리활동의 전 과정에 참여시킬지 또는 일부과정에만 참여시킬지 결정하도록 한다.

둘째, 요리활동 수행 시 교사는 유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유아가 요리 순서표를 파악하고 요리 도구 및 재료 요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를 오감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가 요리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아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유아가 질문하고 또래와 의견을 나누고 가정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하며, 유아의 경험과 이해수준에 맞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사는 요리활동을 마친 후 요리활동의 교육내용과 개념을 유아의 쓰기, 그림, 작품을 수집하고 토의와 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교사는 요리활동 과정에서 유아와의 대화를 관찰을 통해 유아의 호기심, 흥미, 탐구, 발달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해 알아낸 결과를 다음 활동을 위한 계획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행 연구

종일반에 관한 연구는 종일반이 시작된 이래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초반에는 종일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구정주, 이순영, 1997; 이영자, 2000; 안선희 2001; 김현희, 2003; 이문옥, 2004; 배지희, 이봉선, 탁옥경, 2005)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일반 운영에 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요구 조사(안성실, 2002)와 종일반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영희, 1990; 이순영, 1996)가 많이 있었다.

최근에는 종일반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외에도 종일반을 운영하는

교사들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김혜진(200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종일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57로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휴가나 급여 등에서의 불합리한 대우, 정규교사가 아닌 불안정한 지위, 학급 운영의 위한 시설, 설비 및 자료의 미비, 유치원에서의 잡무,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교사간의 의사소통의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이승은(2008)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따른 교사와 유아의 어려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종일반 교사들은 스스로를 유치원 내에서는 소속감이 없는 주변인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을 담임교사로 대우해 주지 않는 학부모와 유아들로 인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하였다.

또한 종일제 학급에서의 유아행동의 특성 분석(장영숙, 2005)이나 종일제 학급 유아들의 스트레스 연구(김윤희, 2003), 종일제 프로그램 연구(이한영, 2005)등처럼 종일반의 유아들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도 늘고 있다. 문미희(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만 3세 유아의 종일반 생활과정을 살펴보고 만 3세 유아의 종일반 적응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으며, 만3세의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 적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연구하였다. 처음에는 종일 유치원에 있어야 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던 만 3세 유아는 반복적인 유치원 생활을 통해 점차 적응해 갔다. 이를 위해서는 종일반 유아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의 확보로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일반에 관한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종일반에 관한 문화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종일반에 관한 연구는 종일반 운영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이거나 운영 실태나 요구도 조사에 관한 연구, 교육 프로그램, 시설 설비 및 재정지원, 부모 참여, 교사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

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종일반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비해 시설, 설비가 많이 부족하며 종일반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일반은 교사나 유아 모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질 높은 종일반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이에 많은 종일반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요리활동과 같이 유아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요리활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요리 활동과 과학적 개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은실(1999)은 요리활동이 유아의 과학개념 및 영양지식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만 5세 유아 4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에게는 주제 통합적 접근법으로 10일 동안 10회의 요리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리 활동이 유아의 과학개념 중 크기, 색, 촉감, 맛의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요리활동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유아의 과학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아의 영양지식개념도 발달시켜 영양 및 성장발달, 식품의 특성, 식품 다루기, 사회적, 심리적 용구의 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리활동은 유아가 경험하고 익혀야 할 중요한 과학개념과 영양지식개념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유익한 활동임을 시사해 준다. 또한 손자옥(2002)은 요리활동을 통해 유아의 개념학습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만 4세 2명과 만 5세 3명을 대상으로 6회의 요리활동을 실시한 결과 유아들은 요리를 하면서 과학적 활동 기술, 주의 깊은 관찰, 예측, 그리고 물질의 상태 변화와 힘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요리가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실제로 볼 수 있고 색, 형태, 크기 비교, 관찰, 측정, 사물의 특성에 관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 한상경(2005)의 연

구에서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텃밭을 가꾸어 채소를 재배해 보고 이를 활용한 요리활동을 해본 결과 환경친화적인 태도와 환경 보전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영(2005)의 연구도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0회의 요리활동을 실시한 결과 유아주도의 요리활동이 교사주도의 요리활동에 비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태도를 증진시키는데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주도 요리활동이 직접적인 조작과 구체적인 경험이 더 풍부하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신숙(2006)은 만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구성주의에 기초한 요리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구성주의에 기초한 요리활동이 유아 스스로 호기심과 의문을 갖게 하고 재료를 관찰하고, 분류하고, 측정하고, 예측하고, 실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는 과학적 과정 기술을 경험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요리활동이 과학 개념과 과학적 태도, 영양지식 개념, 과학적 문제 해결력을 증가시키는 가치 있는 활동임을 증명해 주고 있으나, 활동 안에서 유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활동하는지 그 과정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또한 많은 연구가 만 5세나 만 4세와 같은 단일 연령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만 3, 4, 5세가 함께 활동하는 혼합연령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만 3, 4, 5세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종일반 유아들이 요리활동을 하며 다양한 교수 방법과 새싹반 유아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연구하여 종일반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연구 기관

본 연구 기관은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주변은 주택가이며, 학교 뒤에는 산이 있다. 숲속 유치원은 초등학교 건물 안에 있으며, 1층에는 만 3, 4세 혼합반인 풀잎반과, 만 5세반인 나무반 이렇게 두 학급이 있고, 2층에는 오후별도 종일반인 새싹반 교실로 만 3, 4, 5세 혼합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용 화장실이 있으며 실외 놀이터와 운동장, 급식실, 도서관 등은 초등학교와 공유하여 사용한다.

숲속 유치원의 교직원 구성은 원장, 원감은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만 3,4세 혼합반 담임 1명, 만5세 담임 1명, 그리고 종일반(만 3, 4, 5세 혼합반) 담임교사 1명, 그리고 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가 종일반에 보조 교사로 있다.

숲속 유치원은 반일반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일반의 경우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반 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넘지 않도록 반일반 교사는 오전 8시 30분 출근하여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고, 종일반의 교사는 오전 10시 30분에 출근 하여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한다. 토요일의 경우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2, 4주는 학교장 재량휴일이며, 1, 3, 5주는 종일반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2) 새싹반 유아들

본 연구자가 담임교사인 새싹반은 만 3, 4, 5세 혼합반이며, 오후별도 종일반이다. 오전에 각 반일반 일과를 마치고, 종일반을 신청한 유아들이 오후에 2층에 위치한 새싹반에 모여 오후 일과를 시작한다. 새싹반은 만 3, 4, 5세 혼합 오후별도 종일반인 새싹반은 만 3세 4명, 만4세 9명, 만 5세 11명, 총 24명이다. 만 3세 유아는 남아가 1명 여아가 3명, 만 4세는 남아 4명, 여아 5명, 만 5세는 남아 6명 여아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싹반의 맞벌이 부부의 유아는 15명, 교육비를 지원받는 유아는 6명이 있다.

<표 1> 새싹반 유아들

연령	이름 (남아)	이름 (여아)
만 3세	○혁이	○현이
		○서나
		○소연
만 4세	○원준	○이주
	○성민	○고아
	○철이	○서민
	○소유	○이서
		○은이
만 5세	○정호	○영희
	○진유	○주효
	○석이	○이세
	○창이	○이은
	○이호	○연이
	○준이	

새싹반 유아들은 대부분 중·하류층의 가정환경으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일용직이 많아 유아들의 귀가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부모님 보다는 형제와 함께 귀가하는 아이들이 많아 귀가 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 새싹반의 남아들의 경우 매우 활동적이며 쌓기나 동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여아들의 경우 조작 놀이나 역할, 조형 활동을 즐기며 동생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남아들은 또래끼리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초등학교 교실을 개조한 새싹반은 한쪽 벽 전체는 실외 놀이터와 운동장이 보이는 창문으로 되어 있고, 출입문은 2개 사용하고 있다. 교실 바닥은 원목 마루로 되어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공기청정기와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 놀이 영역은 쌓기, 역할, 조형, 과학, 언어, 수·조작, 바느질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일반 아이들의 간식을 위한 간단한 조리 시설을 위해 냉장고와 식시소독기, 전자레인지, 간식 도구 보관함 등이 있다.

새싹반 유아들은 오후 1시부터 일과가 시작된다. 자유선택활동과 대·소집단 활동이 끝나고 나면 3시부터 간식을 먹고, 실외 자유선택놀이를 한다. 이때 개별 귀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유아와 함께 귀가하려는 학부모들과 학원선생님들이 자주 드나들어 매우 혼잡하다. 이후 6시까지 유아들은 개별 귀가로 인해 개별 활동 및 자유선택활동이 이루어진다.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귀가 시 보호자 확인과 싸인 등 귀가 보고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새싹반은 오후별로 종일반 특성상 입·퇴원이 잦고 아이들의 귀가 시간이 달라 대집단 활동 보다는 소집단이나 개별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3, 4, 5세 혼합연령이라 수업 준비 시 수준별 활동 준비가 필수적이다. 새싹반의 하루 일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새싹반 하루 일과

	1:00 ~ 1:50	- 출석 및 자유선택 활동
	1:50 ~ 2:00	-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2:00 ~ 2:10	- 자유선택활동 평가
	2:10 ~ 2:45	- 중심 활동
	2:45 ~ 2:55	- 동화 듣기
하루 일과	2:55 ~ 3:05	- 화장실 다녀오기, 손 씻기
	3:05 ~ 3:25	- 간식 먹기
	3:25 ~ 4:10	- 바깥놀이
	4:10 ~ 4:15	- 이동 및 손 씻기, 화장실
	4:15 ~ 4:25	- 휴식 및 음악 감상
	4:25 ~ 5:30	- 개별 활동 및 개별 귀가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2008년 12월 4일까지 8주간 진행되었으며, 문제 파악을 위한 요리 활동과 개선을 위한 요리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행연구의 과정은 McTaggart(1998)가 제시한 나선형의 자기반성적 연구 사이클 모형 즉, 문제 파악과 변화의 계획 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단계, 이러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 반성의 단계, 수정된 계획에 의한 실천과 관찰 및 이에 대한 반성의 반복 단계(이용숙, 2005)의 모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문제 파악 및 변화의 계획

연구자는 2008년 10월 15일 고구마 경단 만들기와 2008년 10월 23일 유부초밥 만들기 요리 활동을 평상시와 같은 요리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고구마 경단 만들기의 경우 PPT를 이용해 요리 재료와 순서 등을 알아본 후 고구마를 탐색하고 썰서 으깨었다. 그리고 개별접시에 조금씩 나누어 주고 개별적으로 경단을 만든 후 모둠별로 모여 카스테라에 묻혀 완성하였다. 완성된 고구마 경단은 우유와 함께 간식시간에 먹었다. 유부초밥 요리활동은 PPT로 요리 재료와 순서 등을 알아본 후 개별접시에 재료를 나누어 주고 요리 활동을 한 후 간식시간에 먹었다. 연구자는 이 두 요리 활동 과정을 비디오 촬영하고, 전사한 후 분석하여 현재 연구자가 진행하는 요리 활동의 문제점인 어린 유아를 배려하지 못하는 점과 혼합연령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요리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요리활동과 혼합연령이 함께 하는 요리활동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 하였다.

2) 2단계: 계획의 실천과 변화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찰

2008년 10월 30일부터 12월 4일 까지 총 6회의 계획된 요리활동을 진행 하였다. 요리 활동 안에 유아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고, 혼합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요리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유아들이 요리활동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하여 기록하고, 사후 활동이나 결과물은 사진으로 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유아면담은 요리활동 후에 평가하는 시간에 어려운 점이나 재미있는 점,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점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요리 활동 결과물에 대해 동료 교사와 토의하는 시간

을 갖고, 전사본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다음 지도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3) 3단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반성

요리 활동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전사본이나 현장노트, 저널, 지도교수와의 면담기록, 동료 교사와의 의견 교환 등을 토대로 요리 활동을 준비하였다.

4) 4단계: 수정된 계획에 의한 실천과 관찰 및 이에 대한 반성의 반복

2차로 수정된 계획안을 토대로 2008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6편의 요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때에도 현장 기록, 사진과 비디오 촬영, 면담, 저널, 동료교사의 협의, 지도교수와의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3. 자료 수집

1) 참여 관찰

본 연구는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종일반 유아들의 효율적인 요리활동방안과 그 안에서 유아들 간의 관계형성에 대해 알아보려는 문화 기술적 연구로 참여관찰법을 사용하였다. 새싹반은 매주 화요일 요리활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본 연구자가 담임으로 있기 때문에 레포 형성이나 유아들의 세계에서 관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2008년 10월 15일부터 2008년 12월 4일까지 8주간 8가지 요리활동과, 요리활동을 하고난 다음날 요리활동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조형, 신체, 역할, 언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후 활동을 진행하며 얻은 정보를 수집하였다. Spradley (1980) 참여 관찰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비 참여, 수동적 참여, 보통 참여, 능동적 참여, 완전 참여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담임으로 있기 때문에 완전 참여의 형태를 취하였다. 연구자와 함께 요리활동을 하며 유아들에게 다양한 발문과 유아들 간의 관계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요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유아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왔다. 또한 교사는 요리를 하며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파악하여 사후 활동을 선정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요리활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였으며, 유아들 간의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수방법을 모색하였다.

2) 사진과 비디오 촬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있어 사진과 비디오 촬영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요리활동을 하다보면 교사는 유아들의 관찰뿐만 아니라 재료 준비부터 유아들의 안전까지 신경 쓸 부분이 많아 유아들을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이나 유아들 간의 상호 작용, 또는 상황등을 관찰해야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요리활동을 하는 곳에 비디오를 설치하여 전 과정을 촬영하여 전사 하였고, 의미 있는 순간이나 유아들의 완성된 요리 등은 사진으로 남겨두어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카메라의 특성상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장면만을 촬영할 수 있어

새싹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면을 담지는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3) 면담

면담은 새싹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새싹반 유아들은 주로 비형식적인 면담형식으로 요리활동과 사후 활동을 하며 수시로 이루어 졌다. 새싹반 유아들이 요리 활동을 하며 변화하는 모습과 서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과 요리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거나, 교사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는 유아들의 비형식적인 면담은 비디오로 촬영된 것을 그대로 전사하여 사용하였다.

4) 저널 쓰기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많이 활용되는 것이 저널쓰기이다(박은혜, 1999). 교사의 전문성과 반성적 사고가 요구되는 실행 연구에서는 교사의 저널쓰기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수집 방법이 되었다.

3. 자료 분석

연구기간 동안 수집된 요리활동 동영상 파일과 사진, 요리 활동 관련 사후 활동 결과물, 유아 관찰 기록지, 면담 자료, 교사 저널, 현장약기 등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새싹반 요리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요리활동 녹화 자료, 교육계획안, 사진자료, 교사 저널, 보조교사 면담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 실시할 요리활동을 계획하는데 반영하였다. 반영된 내용은 위에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 다시 분석, 정리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교사와 의논하거나 참고문헌을 조사하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새싹반 요리활동의 변화과정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요리활동 녹화자료를 전사하여 현장노트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또한 일일교육계획안, 사진 자료, 교사 저널 및 현장노트와 동료 교사 전사본 등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에 해당하는 예비 범주 목록을 만들었다. 예비목록작성을 위해 위의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유아들의 의미 있는 언어, 행동, 에피소드들을 표시하였다. 1차, 2차 수정과정을 거친 예비 범주 목록은 상위 범주 목록으로 만들어 졌다.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상위범주에 따른 하위범주를 구분한 후 작성된 범주에 따라 자료에서 적합한 사례들을 추출하고 분석한 뒤 각각의 범주에 따라 부호화하여 코딩하고 해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새싹반 요리활동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새싹반의 평소 요리활동 모습과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자이자 새싹반 담임인 교사는 평소에 하던 요리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1) 어린 유아를 배려하지 못한 요리 활동

새싹반 요리활동의 문제점 중 하나는 요리 활동을 하면서 어린 유아들을 배려하지 못한 다는 것이었다. 요리 활동의 경우 활동 시간이 길어 어린 유아들의 경우 힘들어하기도 하였고, 긴 요리 활동 후에 정리정돈 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교사 : 자 이제 선생님이 접시에 한 주걱씩 담아 줄 테니 동그랗게 만들어서 선생님께 오면 돼요~

현이 : 선생님~ 그럼 끝이에요?

교사 : 아니~ 카스테라 묻혀야죠?

현이: 맞다 카스테라~~~~~ 휴~~ (한숨 쉰다)

서나 : (옆에 친구는 보며) 어렵다. 그지?

현이 : 응.

(고구마 경단 만들기, 2008. 10. 15)

위의 사례는 요리의 과정이 너무 길어 유아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이다. 만 3세의 유아들은 고구마 삶은 것 으깨고, 유우와 아몬드랑 섞고, 경단으로 만들어서 다시 카스테라에 묻히는 과정이 너무 길고 어렵게 느껴진 것이었다. 다음은 정리정돈 하는 것에 대해 힘들음을 표현하는 유아들의 사례이다.

(중략)

(아이들 일어나 정리한다)

혁이 : 이휴~ 그냥 먹음 좋은데...

소연 : 마져 정리하는거 힘들어. 구지

혁이 : 응

서연 : 선생님~ 애네 정리 안해요~~~

(유부초밥 만들기, 2008. 10. 23)

위의 사례는 요리활동을 하고 나서 정리정돈 하는 것에 대해 유아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린 유아들의 경우 긴 요리활동 후에 정리 정돈까지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요리활동을 하고난 후 빨리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간식으로 먹고 싶은데, 정리정돈을 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은 새싹반 모든 유아들에게 매우 힘든 점이였다.

2) 혼합연령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요리 활동

새싹반 유아들은 혼합연령 종일반으로 서로 연령이 다른 유아들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형님유아와 동생 유아

간에 서로 공동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형님과 동생이 함께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 귀찮고 나는 힘들게 하는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요리활동은 매우 매력적인 활동으로 새싹반 유아들이 좋아하지만 요리활동이 진행되는 날 새싹반은 매우 혼잡하고, 크고 작은 사고와 갈등 상황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나이 많은 유아들은 ‘나는 동생보다 잘한다’라는 우월감이 있었고 어린 유아들은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또래끼리 어울리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도 요리활동을 수준별로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어린 유아들은 돌발 행동으로 안전상의 문제도 많아 교사와 유아 모두 긴장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모습이었다. 다음은 나이 많은 유아와 어린 유아들이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새싹반의 사례이다.

교사 : 우유가 필요해~ 그래서 고구마랑 우유랑 섞을 건데, 애들아~ 고구마랑 우유랑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애?

소연 : 어... 어...(한참 생각하다) 꿀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교사 : 꿀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중략)

교사 : 다음.. 어떻게 될까?

원준 : 하얗게 변할 것 같아요

이호 : 속은 원래 하얗~ 그지? (만5세 유아들끼리 맞다고 함)

현이 : 하얗대~~ 까르르르~~~ (웃는다)

이호 : 야!! 시끄러 조용히 해!!

현이 : (이호를 쳐다본다.)

(고구마 경단 만들기. 2008. 10. 15)

위의 사례처럼 유아들은 요리활동을 하면서 요리의 변화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동생이 대답한 것에 대해 ‘속은 원래 하애’내지는 ‘시끄러워 조용히해!!’ 라고 말하며 동생들 나무라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생유아도 이러한 형님유아의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며 조용히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고구마 경단을 만들 때 볼에 삶은 고구마를 넣고 으깨기 위해 모여들 때의 사례이다.

(몇 명의 아이들이 자기 옆 사람이 하는 것을 보러 모여든다)

이호 : 쫘아~~~ 저리가~~~ 선생님 자리가 쫘아요~

석이 : 애네들 아까 앞으로 나왔어요~ (동생들을 가리킨다)

교사 : 자~ 뒤로 조금씩 가기~ 우유 섞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호 : (동생들을 보며) 너네 뒤로 가라고~~

(고구마 경단 만들기, 2008. 10 15)

위의 사례는 유아들이 서로 자기만 생각하여 앞으로 나와 좁은 자리에서 작은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다. 형님 유아들은 어린 유아들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바른 행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알려 혼나게 하려하고 있었다. 또 동생들은 이런 형님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수긍하는 모습 이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새싹반 유아들은 형님과 동생 유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카스테라 가루에 경단을 굴리는 상황에서의 대화이다.

교사 : 자~ 이제 동그략게 만든 고구마를 카스테라 가루에 굴릴꺼예요.

어떻게 굴러 가나 잘 관찰해 보세요~

교사 : (손을 쪽쪽 빨아 먹는 유아를 보자) 안돼. 여러 사람이 먹는 건데..

침 묻히고 만지면 안 되지요~

준이 : 으~~ 더러워. 유리 손가락 빨았어~~ 으~~ 드려.

정호 : 너 혼자 다 먹어.

교사 : 아니야, 여기만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덜어 줄게요.

유리~ 가서 손 씻고 오세요

(고구마 경단 만들기. 2008. 10 15)

위의 사례는 한 유아가 실수로 카스테라 가루를 손가락에 묻혀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지저분하다며 놀리는 장면이다. 유아들끼리 관계형성이 잘 되어 있었다면 친구의 작은 실수를 덮어줄 수도 있는데 새싹반 유아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여 나이 많은 유아와 어린 유아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였다.

2. 새싹반 요리활동의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새싹반 요리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새싹반 요리 활동에서 나타는 문제점으로 어린 유아를 배려하지 못하는 요리 활동인 점과 혼합연령의 유아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새싹반 요리활동의 개선방안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요리 활동

첫 번째 새싹반 요리 활동의 문제점인 어린유아를 배려하지 못하는 요리 활동의 개선방안으로는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요리활동으로 계획하는 것이었다. 요리활동 안에서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어린 유아들도 즐겁게 요리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어 요리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하였다. 또한 요리 활동 후 정리를 하고 간식으로 먹기 보다는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식을 해보거나 간식시간으로 연결하고 나서 정리정돈을 하여 새싹반 유아들에게 요리 활동 후 정리정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덜어주려 계획 하였다.

2) 혼합연령이 함께 하는 요리 활동

새싹반 요리 활동의 두 번째 문제점인 혼합연령의 유아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수준별 요리활동을 위해 소그룹 활동 시 연령별로 모으던 것을 혼합연령으로 소그룹을 구성하였다. 혼합 연령의 유아들이 서로 경험을 함께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유아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 지고 유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으로 진행되는 요리를 할 때에도 나이 많은 유아들이 어린 유아들을 도와주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줌으로써 새싹반의 유아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요리 활동을 계획하였다. 위의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6회의 요리활동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새싹반 요리 활동 계획

횟수	요리 활동	선정 이유
1	미니피자	유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새싹반 유아들이 즐겁게 요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식빵에 재료를 올려놓는 것으로 오븐 없이 전자렌지만으로 간단히 피자를 만들 수 있고, 창의적으로 피자를 꾸밀 수 있다.
2	김치전	유치원에서 김장을 한 김치를 이용하여 요리하는 것으로 유아들에게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모둠별로 김치전을 만들어 보면서 서로 협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계란후라이	재료와 방법도 간단하고, 유아들이 선생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들이 간편히 할 수 있다.
4	미니 햄버거	유아들이 좋아하는 메뉴이면서도 빵 사이에 재료를 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특별한 조리 없이 개별 활동이 가능하며 어린 유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다.
5	견과류 강정	유아들에게 잣, 호두, 아몬드, 땅콩, 해바라기씨 등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물엿에 섞어 우리나라의 과자류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모둠이 완성한 한판의 견과류 강정을 나누어 먹으며 부분과 전체 개념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6	어묵꼬치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 있는 요리로 겨울철 유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종일반 유아들의 오후 간식으로 적합하고, 혼합연령 소그룹 별로 모여 이야기 나누며 먹어보며 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나눌 수 있다.

3. 새싹반의 변화과정

본 장에서는 6회에 걸친 새싹반 요리활동의 개선방안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새싹반은 유아의 참여도가 높으면서도 어린 연령의 유아들도 부담 없이 즐거운 요리활동이 되도록 창의적인 표현을 발휘할 수 있고, 혼합연령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자주 제공할 수 있는 요리활동을 진행하였다.

1) 우리가 만들어요

먼저 본 연구자인 새싹반 담임교사는 의식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견과류 강정을 만들면서 유아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중략)

교사 : 우리가 만든 것이 이렇게 굳어서 완성이 됐어요~ (중략)

이주 :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만든거예요!! 우들우들우들 해요~

(중략)

교사 : 자~ 그럼 우리가 만든 것을 간식으로 먹어보고~ 오늘은 선생님이 싸줄 테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도 한번 드려 보세요~

은이 : 와~~~~~ 우리가 만든 거 집에 싸간대~

(견과류 강정 만들기. 2008. 11. 28)

새싹반 유아들이 함께 경험한 것을 “우리”라는 테두리로 묶어 하나로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다. 또, 새싹반 유아들은 “우리”가 만든 것을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유아들이 요리를 만들며 함께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 모습이다. 이렇게 형성된 “우리”의 개념이 작은 소그룹으로 요리활동을 할 때에도 나타난다.

교사 : 자~ 파랑 모듬 모이세요~

서민 : 파랑 모이래~~ 야~~ 파랑 모이래~~

이서 : 우리 한대??

서민 : 응~ 파랑 모이래~

이서 : 야~~ 우리 한 대. (옆에 친구를 보며)

성민 : 나두??

이서 : 아니야~ 넌 파랑 아니잖아

(김치전 만들기. 2008. 11. 5)

위의 사례에서 유아는 “우리”의 개념을 작게는 모듬으로 한정지어 새싹반 안에 작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또한 파랑 모듬에 속한 유아와 그렇지 않은 유아를 구별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은 김치전 활동 후 색 밀가루로 그림을 그리는 사후 활동을 할 때의 대화이다.

영희 : 우리는 처음에는 이색으로 먼저 하자.

이세 : 그래~

주호 : 그 담엔?

영희 : 기다려~ 우리는 이색먼저 할꺼야
이세 : 그담엔 이 색 해보자~
주호 : 히히히~ 이상해~~~
유아들 : (까르르 웃는다.)
영희 : 우린 이렇게 했는데~ (자랑스럽게 옆 모둠에게 보여준다.)

(김치전 만들기 사후활동, 2008. 11. 6)

위 사례도 작은 공동체 “우리”를 형성하여 우리라는 공동체는 함께 경험한다는 의미로 같은 색을 먼저 하자고 제안한다. 또 우리와 다른 모둠에게 자신의 모둠의 활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다른 모둠과의 차별성도 인식하고 자신의 모둠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다음은 어묵 꼬치를 만들고 소그룹으로 냄비에 담아 간식으로 먹으면서 유아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교사 : 애들아~ 맛이 어때??
철이 : 맛있어요~ 최고예요~
혁이 : 뷁셔~뷔셔 곁애~~~ 맛있다.
고아 : 선생님~ 우리꺼 대뽕 맛있어요.
교사 : (웃으며) 우리꺼 많이 맛있어요?
고아 : 네. (웃는다)
이은 : 우리꺼 먹어봐~ 맛있어.
창이 : 우리 것두 맛있어.

(어묵꼬치 만들기, 2008. 12. 3)

위의 사례들처럼 유아들도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우리에게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넓게는 새싹반 전체를 좁게는 소그룹별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함께 하면 좋아요

요리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혼합연령 끼기 서로 어울려지지 않았던 유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어울리며 도와주며 어린 유아들은 나이 많은 유아들을 보고 배우고, 나이 많은 유아들은 어린 유아들에게 알려주며 스스로의 지식을 정교화하고 형님으로써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새싹반 어린 유아들의 경우 요리활동을 할 때 교사의 질문에 당황해 하거나 그냥 웃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나이 많은 유아들과 소그룹으로 모여 활동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나이 많은 유아들의 말투를 따라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은 미니 햄버거 만들기 사후 활동으로 햄버거 CF 만들기 활동을 할 때의 사례이다.

(비디오 촬영 중)

혁이 : (처음에는 잘 말을 못하다가 조용히) “맛있어요~” 한다.

현이 : 최고예요~!!

이세 : 아주 맛있어요~ 맛있는 햄버거.

서나 : 아주 맛있어요.

석이 : 싸고 맛있어요~ 내 햄버거 많이 사세요~

소유 : 싸고 맛있어요~ 많이 사세요.

영희 : 맛있는 미니 햄버거입니다. 많이 사세요~~ 새싹 햄버거입니다.

원준 : 새싹 햄버거입니다. (웃는다)

(미니 햄버거 만들기 사후활동. 2008. 11. 20)

처음에는 CF를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 “맛있어요” “최고예요” 라고 단순히 한마디 정도 하던 동생들이 형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짜고 맛있어요” “맛있는 햄버거 많이 사세요” “새싹 햄버거입니다” 등 나이 많은 유아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소그룹 유아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서민 : 사탕 까는 소리 곁애

교사 : 아~ 사탕 까는 소리~

연이 : 응~ 부침개 부치는 소리랑 비슷해요

교사 : 그러네~ 맛있게 부침개가 익는 소리네~

소유 : 근데~ 흠이랑 색깔이 똑같아요.

교사 : 아~ 흠이랑 색이 비슷해 쯤니?

석이 : 네~ 똑같아요. 흠이랑. (서로 쳐다보며 웃는다)

서민 : 뒤집어 보면 좋겠다.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한다.)

소유 : 그리고~ 또~ 얼굴색 같아요.

이은 : 얼굴도 뒤집어 봤으면 좋겠다. (서로 쳐다보며 웃는다.)

(계란 후라이 만들기. 2008. 11. 5.)

처음에는 단순히 어린 유아들이 나이 많은 유아들의 어휘를 따라하던 모습만 보이던 새싹반 유아들이 함께 활동하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나이 많은 유아

들과 어린 유아들 간에 서로 쳐다보며 웃는 등 긍정적인 관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혼합연령 학급의 가장 큰 장점은 “꼬마 선생님”이 아닐까 싶다. 나이 많은 유아와 어린 유아를 짝을 지어 도와주게 할 경우 큰 아이들은 자신이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선생님의 말투까지 따라하며 동생들을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혼합연령의 유아들이 단순히 함께하는 경험에서 더 나아가 나이 많은 유아들이 하는 것을 어린 유아들이 보고 따라하며, 나이 많은 유아들은 어린 유아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음은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나이 많은 유아들이 하는 모습을 어린 유아들이 관찰하며 형님 유아들은 잘한다는 칭찬을 해주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교사 : (만 3세 유아들을 부른다.) 너희는 다음에 할꺼니까 먼저 언니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서나 : 네~ 우리 다음에 한 대~

이은 : (힘 조절이 안 되어서 계란이 부서짐. 하지만 후라이팬 안에 넣음.)

주호 : (다른 형님 유아가 계란을 깨서 후라이 팬 안에 잘 넣자)

현이 : 우와~ 미끌미끌하게 생겼다~

서나 : (귀를 막고 있다가 계란이 후라이팬에 잘 들어가자 신기해한다.)

우와~우와~ 저것 봐봐~ 주호 언니 잘하지~

현이 : (눈 맞추며...) 응~

(계란 후라이 만들기. 2008. 11. 12)

교사는 어린 유아들에게 나이 많은 유아들이 활동하는 것을 관찰하게 하였다. 나이 많은 유아들은 어린 유아들의 좋은 모델링이 되고, 어린 유아들은 나이 많은 유아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꼬마 선생님”으로써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다음의 사례도 교사가 나이 많은 유아에게 시범을 보이게 하여 어린 유아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됨으로써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례이다.

소연 : (만 3세 유아 뒤집고 싶어 하나 잘 되지 않는다.)

교사 : 손을 바꿔서 해봐.

소연 : (해본다... 하지만 안 되자)

교사 : 자~ 여기 오빠 하는 거 한번 봐봐

소연 : (옆에 앉은 오빠가 하는 것을 본다.)

석이 : (계란을 잘 뒤집는다)

소연 : 우와~

석이 : (뿌듯해 한다.)

소연 : 나두 해줘.

석이 : 그래.

소연 : (뒤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오빠 되게 잘한다.

석이 : (뒤집어 준다.)

교사 : 잘 했어요~ 다 익은거 같은데?

석이 : 웃으며 고개 끄덕임. 접시에 담고 간식코너에 가져다 둔다.

(계란 후라이 만들기. 2008. 11. 12)

위의 사례 역시 교사가 나이 많은 유아를 동생에게 좋은 모델링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어린 유아가 “오빠 되게 잘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나이 많은

유아는 더욱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 유아는 나이 많은 유아를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나이 많은 유아들도 어린 유아들의 도움 요청에 흔쾌히 승낙하는 모습도 보였다. 새싹반 만 3세의 유아들은 교사가 어떠한 활동을 제시했을 때 “난 못해요”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나이 많은 유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형님들에 비해 난 잘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요리활동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단순히 어린 유아를 도와준다는 인식이 아니라 나와 친구이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도와준다는 인식으로 까지 넓혀지게 되었다. 다음은 동일 연령 간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다.

(미니피자를 만들기 위해 개별접시를 가지고 자리에 앉았다.)

교사 : 네~ 마음대로 올리세요. 다한 사람은 야채 올리기~

진유 : 선생님~ 은이 먹었어요~

준이 : (성민이를 보며) 내가 도와줄까?

성민 : (아무 말도 안한다.)

준이 : 마음대로 올리는 거야. 너 옥수수 했지? 이것두 하구...

성민 : (쳐다만 본다)

준이 : 내가 해줄까?

성민 : 응

준이 : (수저로 야채와, 햄 등을 식빵에 올려놓아 준다.)

(미니피자 만들기. 2008. 10. 30)

같은 연령이라 할지라도 발달이 빠른 유아와 느린 유아가 분명 있다. 보통 발달이 느린 유아는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며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의 사례도 조금은 소심한 성격의 발달이 조금 느린 만 5세의 유아를 또래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다. 동생들과 함께 지내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 유아들은 동일 연령이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스스럼없이 도움을 주는 모습이다.

다음은 어린 유아들이 나이 많은 유아를 자신과 같은 공동체로 인식 하는 모습이다.

현이 : (핫플레이트 아래쪽을 집으려 하자)

교사 : 어~어~ 아니야~ 뜨거워~ 손잡이를 잡아야지~

현이 : 후라이팬 손잡이를 잡고 뒤집는다.

이세 : 이거 잡아~ 이거 (손잡이를 알려준다)

현이 : 언니 내 팀이야?

이세 : 어~ 너 팀이야. 뒤집어~

현이 : (선생님을 보고) 언니가 뒤집으래요~

교사 : 어~ 뒤집어봐~

현이 : 안돼요~

이세 : 내가 해줄까? (뒤집어 준다)

현이 : (일어나며) 다 한거 같아요~

(계관 후라이 만들기. 2008. 11. 12)

위의 사례는 어린 유아가 뒤에서 자신의 활동을 보며 이것 저것 알려주는 나이 많은 유아에게 “언니 내 팀이야?”라고 말함으로써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와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모습이다. 또, 교사에게 ‘언니가 뒤집으래요’라고 말하며 나이 많은 유아의 의견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다음은 혼합연령의 유아들이 교사가 도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다.

(어묵꼬치를 만들며)

서나: 우와~ 대빵 크다.

혁이 : 나두 나두

은이 : 이거봐봐 웃기지. (꼬불거리는 모양 보며)

소유 : 어~ 이거봐봐

주호 : 이렇게 해야 돼

진유 : 이렇게 해도 되거든

혁이 : 마져. 마음대로 하는거야

석이 : 나 다했는데 누구 도와줄까??

서나 : 오빠~ 나~~

석이 : 알았어. (간다)

현이 : 난 혼자 할꺼야~

(어묵 꼬치 만들기. 2008. 12. 3)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 듯이 처음에는 어린 유아들에게 시범만 보이고 교사의 제시 없이는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나이 많은 유아들이 스스로 어린 유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다. 연구가 조금 더 진행될수록 나이 많은 유아와 어린 유아는 이제 한 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며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새싹반 유아들이 자유선택 놀이 시간에 어묵 꼬치 가게 놀이를 하는 모습이다.

영희 : 야~ 블록 더 가져와

창이 : 여기는 어묵가게야~

고아 : 언니~ 나두 할래

영희 : 그래~ 그럼 가서 블록 가져와

(유아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중략)

(준비해 놓은 구슬끼기와 막대를 이용해 어묵을 만든다.)

고아 : 이걸 여러 색깔 어묵이래~

영희 : 어~

이주 : 나두 어묵 만들래~

영희 : 넌 국물 만드는 사람

창이 : 이거 더 가져와

(다양한 조작영역에 있는 작은 소품들을 더 가져오라고 함)

철이 : 저기요~~ 오뎅 주세요~

영희 : 어묵이거든

철이 : 어묵 주세요~

영희 : 아직이요~~~ 조금있다 오세요

철이 : 이거는 돈이래. (옆에 있는 구슬을 내민다.)

영희 : 돈이 무슨 그러냐 (웃는다)

(중략)

이호 : 어묵주세요~

창이 : 여기 있습니다~ 돈 내야지~~~~

이호 : 앓.. 여기요~ (빈 손으로 툭 친다.)

창이 : 네~ 또 오세요

영희 : 어묵사세요~~~ 어묵 사세요~~~~

이서 : 이거는 돈 이래~

(동생유아가 종이를 자르고 서투르게 숫자를 쓴 돈을 가져온다)

영희 : 와~ 돈이다

유아들 : 빨리오세요~~ 빨리~빨리요~~~ 어묵 나왔습니다.

(어묵 고치 만들기 사후 활동. 2008. 12. 4)

위의 사례는 나이 많은 유아와 어린 유아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놀이하는 모습이다. 새싹반 유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이 많은 유아는 도움만 주는 사람, 어린 유아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 나이 많은 유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돈’을 만들어 오는 동생들을 환호해주며 동등하게 함께 놀이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 되는 새싹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 우리는 새싹반 요리사

새싹반 요리 활동은 혼합연령 유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것으로 유아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를 인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줌은 물론, 자기가 요리한 것을 간식으로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간단히 활동에 대해 평가도해 보고 서로 알게된 정보도 나누며, 유아들이 흥미를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후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함으로써 유아들이 하나 됨을 돕고자 하였다. 먼저 개별 귀가하는 어머니가 오셔서 그 유아가 먼저 마무리하는 상황의 사례이다.

교사 : 은이야~ 엄마 오셨네. 손 씻고 갈 준비 하자

은이 : (자기가 먹다 남은 것을 가리키며) 나 이거 엄마 줄래요

교사 : 그래 선생님이 써줄게.

은이 : 엄마~ 이거 되게 맛있어. 고소해.
소연 : 그지~
정호 : 응. 되게 맛있어.
소연 : 선생님~ 나두 써 갈래요.
정호 : 나두요. 나두 우리 엄마 먹어보라고 할래요.
교사 : 조금 더 먹고 남으면 써 주세요. 지금은 조금 더 먹어요.

(견과류 경정 만들기. 2008. 10. 15)

유아들은 자신이 만든 요리를 엄마에게 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다. 또한 같이 요리한 친구들과 같은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은 미니피자를 만들며 자신들은 진짜 요리를 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느끼는 사례이다.

교사 : 우리가 얘기 하는 동안 다 익었네~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식혔다가 잘라 불꺼예요~ (전자렌지에서 꺼내어 나누어줌)
유아들 : 으~~~ 뜨거워~, 진짜 뜨거워~
고아 : 와~ 진짜 피자 같애. 맛있겠다.
원준 : 어. 진짜 피자 냄새나.
이세 : 예쁘다. 구지
원준 : 어~ 내 것도 예뻐.
고아 : 내 것두.

(미니피자 만들기. 2008. 10. 30)

위에서 유아들이 ‘진짜 피자 같애’ ‘진짜 피자 냄새나’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만든 것이 진짜 요리임을 기뻐하는 모습이다. 또, 자신이 만든 것도 예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예쁘다고 인정해 주는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다음은 요리를 간식으로 먹으며 나누는 대화이다.

교사 : 자~ 그럼 이제 너희가 만든거 한번 먹어보자~ 요쿠르트랑 같이 줄테니까 내가 만든 맛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성민 : 선생님. 완전 맛있어요.

준이 : 응. 완전 맛있어. (맛있게 먹는다.)

성민 : 엄마가 해준 것 보다 더 맛있어요.

교사 : (웃으며) 그래?

성민 : 네. (웃는다)

(미니 햄버거 만들기. 2008. 11. 12)

유아들은 “엄마가 만들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유아들은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내가 만든 요리가 단순한 어린이 들이 하는 요리가 아닌 어른들이 내게 해 주었던 요리와 비슷하게 완성된 것을 보고 그 성취감을 더욱 강해 졌다. 그리고 함께 요리를 하며 같이 느낀 성취감으로 유아들은 서로의 자부심을 공감하고 있었다.

다음은 사후 활동으로 신체표현을 하기 전에 요리활동을 회상해 보며 나누는 대화이다.

주호 : 콧~ 깨지니까요~ 달걀노른자가 그대로 가운데 있고요~ 하얀 색은 곁에 있는데 조금 울퉁불퉁 했어요.

교사 : 그랬구나~ 다른 사람은?
 혁이 : 계란이 다이아몬드 모양이었어요~
 현이 : 난 하트 모양~
 유아들 : 나두~나두~ 나두 하트 모양.
 소유 : 에네르기파~~~ 모양이요~
 교사 : 그건 무슨 모양이었어?
 소유 : (손으로 그림) 막~~ 지지지직~~ 하는 모양이요~
 교사 : 아~ 막 지지지직~ 했어?
 유아들 : 네~ 나두 막 지지지직~~~~ (웃는다)
 석이 : 어~ 처음에는 큰 동그라미 였는데 점점 작은 동그라미 모양이요
 (중략)
 교사 : 자 그러면 어제 내가 만든 계란 후라이가 깨지면서 어떤 모양이었는데
 지 익으면서 어떤 모양이었는데~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계란 후라이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거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유아들 : 키키키키~ 막 터져~ (교사 음악 듣다.)

(계란 후라이 만들기. 2008. 11. 13)

어린 유아들이 하트모양, 다이아몬드 모양, 에네르기파 모양 등 조금은 엉뚱한 표현을 했지만 아이들은 서로 그것을 공감하며 즐거워하였다. 요리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내가 만든 요리가 OO같아요~”라는 표현도 점점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고,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만 3세의 유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계란 후라이 사후 활동으로 진행되었던 신체 표현은 유아들이 매우 즐거워 한 활동으로 형님과 동생들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계란 후라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다음은 어묵 만들기 사후 활동인 어묵가게놀이를 하며 나누는 유아들의

대화이다.

유아들 : 어묵 사세요~~~~ 어묵 사세요~~~~

(쌓기 영역에서 괴물 놀이를 하던 남자 아이들이 다가온다)

정호 : 야~ 우리 이제 배고프니까 어묵가게에 가서 어묵 먹는다 하자.

이호 : 그래~ 여기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야.

정호 : 그래~ 너네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거야. 어묵주세요

고아 : 여기요.

정호 : 후루릅~ 후르릅~ 충전~~~완료~~~

이호 : 아니야~ 국물은 뜨겁자나. 천천히 먹어야지.

정호 : 아. 맞다.

정호, 이호 : 후루릅~ 후르릅~ 충전~~~완료~~~

(또 괴물놀이를 하러 간다.)

(어묵 고치 만들기 사후 활동. 2008. 12. 4)

위의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새싹반 유아들은 함께 요리를 하며 얻게 된 정보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국물을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야 한다’는 경험이 4놀이하는데 자연스럽게 묻어져 나와 다른 사람들과는 공감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하나의 새싹반을 만들고 있었다. 이처럼 새싹반 유아들은 요리활동을 하며 서로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경험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러한 함께하는 경험은 나이 많은 유아와 · 어린 유아 할 것 없이 새싹반이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묶여 그들만의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혼합연령 종일반인 새싹반에서 이루어지는 요리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연구로서 요리활동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싹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리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 연구자는 새싹반 유아들과 ‘고구마 경단’과 ‘유부초밥’을 요리 활동으로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 하였다.

첫째, 새싹반은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있는 학급으로 요리활동을 하면서 어린 유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구마 경단 만들기의 경우 고구마 삶아 으깨고, 유우와 아몬드랑 섞어 경단으로 만들든 다음, 카스테라에 묻히는 과정이 어린 유아들에게는 너무 길고 어려웠다. 또 요리활동을 하고 나서 정리정돈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것을 빨리 먹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유아들에게는 요리활동이 그저 즐겁지만은 않았다.

둘째, 새싹반 유아들은 혼합연령 종일반으로 서로 연령이 다른 유아들이 함께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 많은 유아와 어린 유아 간에 서로 공동체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함께하려는 노력보다는 귀찮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첫째, 새싹반은 혼합연령 종일반으로 유준호(2006)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어린 유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리활동으로 계획하는 것이었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요리 활동이란 요리활동 안에서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어린 유아들도 즐겁게 요리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어 요리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하였다. 또 요리 활동 후 정리를 하고 간식으로 먹기 보다는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식을 해보거나 간식시간으로 연결하고 나서 정리정돈을 하여 새싹반 유아들에게 요리 활동 후 정리정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덜어주려 계획 하였다.

둘째, 혼합연령의 유아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는 소그룹 구성을 할 때 혼합연령으로 소그룹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강자경(2000)과 이정분(2001)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혼합연령집단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또 혼합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유아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 지고 유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으로 진행되는 요리를 할 때에도 나이 많은 유아들이 어린 유아들을 도와주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줌으로써 새싹반의 유아들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요리 활동을 계획하였다.

2) 새싹반의 변화 과정

새싹반 요리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6회의 요리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6회의 요리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새싹반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가 만들어요

새싹반은 나이 많은 유아들과 어린 유아들이 서로에 대해 귀찮아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라고 생각하는 등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 많은 유아들은 어린 유아들이 잘 모르거나 행동이 느린 것에 대해 답답해하였고, 어린 유아들은 이런 나이 많은 유아들의 모습에 주눅이 들어 활동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였다. 또, 또래의 작은 실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교사가 의식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유아들도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넓게는 새싹반 전체를, 좁게는 소그룹별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유아들은 우리와 다른 무리와의 차별성도 인식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며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즐거워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현지(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들이 “함께”나 “우리”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경험해 보며 단순히 사전적으로만 이해했던 의미를 확장시켜 좀 더 구체적인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유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함께하면 좋아요

혼합연령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 들을 “꼬마 선생님”을 이용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처음에는 나이 많은 유아들이 하는 것을 어린 유아들이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이 많은 유아들이 활동하는 것을 관찰하게 하였다. 나이 많은 유아는 더욱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어린 유아는 나이 많은 유아를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 “꼬마 선생님”으로써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난 후 나이 많은 유아들이 직접 어린 유아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활동하도록 하였다. 어린 유아들은 어른이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어린이가 잘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처럼 뿌듯해 하고 자신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나이 많은 유아도 어린 유아들에게 무언가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고 뿌듯한 느낌을 가지고 난 후에는 어린 유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생겨 어린 유아를 귀찮거나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발달이 조금 느린 같은 연령의 친구에게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 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연구가 조금 더 진행될수록 나이 많은 유아와 어린 유아는 점차 한 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며 함께 어우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준호(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즉, 혼합연령의 학급 유아들의 관계에서 나이 많은 유아들은 형님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였다. 형님이라면 동생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며, 동생보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동생에게 양보하는 아량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혼합연령에서 오는 어려움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단순히 나이에서 오는 관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우리는 새싹반 요리사

새싹반 유아들은 요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유아 자신이 요리한 것을 간식으로 먹으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교사는 요리활동을 하며 유아들이 흥미를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후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함으로써 요리 활동의 교육적인 요소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새싹반 유아들이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돕고자 하였다. 새싹반 유아들은 연구가 진행될수록 “엄마가 만들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요리 활동을 하며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공감할 수 없는 새싹반 유아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김윤희(2005)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혼합연령집단에서의 유아들은 협력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유익을 얻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어 또래간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성발달 및 자아 존중감도 높아졌다. 또한 혼합 연령 유아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배려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 다고 보고한 권귀순(2008)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싹반 유아들은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세를 익히게 되었다.

2. 제언

본 연구는 혼합연령 종일반 요리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하여 새싹반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요리 활동을 진행하고자 실행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종일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요리활동을 중심으로 혼합연령에서 오는 어려움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신체활동, 명화감상, 과학활동, 음악감상 등 다양한 종일반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 혼합연령에서 오는 어려움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만 3, 4, 5세의 유아들을 함께 관찰하였다. 추후에는 만 3세와 만 4세 유아의 관계, 만 4세와 만 5세 유아의 관계, 그리고 만 3세와 만 5세의 관계를 나누어 관찰해 보는 것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혼합연령 종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것이다. 따라서 혼합연령 반일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관찰하여 비교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자경(2000). 유치원의 혼합연령집단과 동일연령집단 유아간의 사회성 발달 비교.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경기도교육청(2006).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경기도교육청.
- (2007). 경기도 종일반 운영지침. 경기도교육청.
- 고현지(2006). 유아들이 "더불어 함께"프로젝트에서 발견하는 "함께"의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00).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 자료 12 종일반. 교육부.
- (2004). 유아교육법. 대통령령 법률 제7120호. 서울: 교육부.
- (2005a). 유아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90호. 서울: 교육부.
- (2004). 유치원 급식·간식 식단 및 요리활동자료. 서울: 교육부.
- (2004). 유아를 위한 자연체험 활동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귀순(2008). 혼합연령 아이들과 함께 배려 공동체 만들어가기.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은(2005). 유아안전교육 활동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희(2005). 혼합연령집단의 협력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변화.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진(2005). 유치원 오후 재편성 종일반 담당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2003). 공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덕성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2001). 유아영양과 요리활동. 서울: 창지사.

- 류원정(2009). 요리를 통한 과학 활동이 유아의 기초과학 개념 및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희(2005). 3세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 생활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영(2007). 병설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혜(2004). 소집단 토의활동의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희, 이봉선, 탁옥경(2005). 공사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실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237-258.
- 서연금(2009). 유치원 종일반에 대한 교사들의 담론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손자옥(2002). 요리활동을 통한 유아의 개념 학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선(2008). 만5세 과량반의 동극활동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원경미(2005). 요리활동을 통한 유아의 언어 양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준호(2006). 혼합연령 종일반 유아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만4, 5세 유아의 연령별 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숙(1990). 전인적 발달을 위한 종일제 교육프로그램. 21세기를 향한 종일제 교육프로그램의 방향. 한국 어린이 육영회.

- 이문옥(2004).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3), 333-349.
- 이소원(2003). 만5세 해바라기반 유아들의 간식시간과 관련된 수학교육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옥(2007). 경기도 공립병설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실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분(2001). 단일연령학급과 혼합연령학급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한영(2005). 하나유치원 종일반 오후 자유선택활동의 운영과 놀이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현진(2009). 만3세 유아 동극 활동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기옥(2004). 유치원 에듀-케어(edu-care)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라, 홍용희, 엄정애, 이순영(2002). 유치원 종일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1), 59-79.
- 정연희(2005). 요리활동에서의 요리재료의 변화에 대한 유아의 이해구축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실(1999).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요리활동을 통한 유아과학교육. 서울: 정민사.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1993). 활동중심 통합과정 편성 운영의 실제. 서울: 동아출판사.
- 한국 어린이육영회(1990). 21세기를 향한 종일제 교육프로그램의 방향. 서울: 을지문화사.

- 한나래(2007). 통합형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보라(2004). 자기장학원 통한 교사와 유아의 변화 : 이야기나누기 수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rownell, C. A.(1990). Peer social skills in toddlers: Competencies and constraints illustrated by same-age and mixed-age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1, 838-848.
- Decker, C. A, & Decker, J. R.(1976).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 Columbus, OH: Merrill.
- Hildebrand, V.(1981).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3rd, ed. rev. New York : Macmillan.
- Roopnarine, J. L, & Johnson, J. E. (2000).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Prentice-Hall.
- Macfee. O. (1974). *Cooking and eating with children : A way to learn*. Washington, D. C.: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ED 10053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onitor the process of finding problems, in order to make an improvement and changes in cooking activity of "Sae Ssac" class to run more effectively.

This research suggests an effective direction in Cooking Activity of "Sae Ssac" class to get high educational result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consist of 24 3~5 yearold children in a all day kindergarten.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problems of Cooking Activities in "Sae Ssac" class?
2. What changes do the students in "Sae Ssac" class Cooking Class show?

Belong to an elementary school in Kyunggi province. This action research was performed from Oct, 15, 2008 to Dec, 4, 2008. During the period, 6 times of cooking activity was done to solve the problems after operating 2 times of cooking activities figuring out the problems.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4 steps. Figuring out the problems and making the plans, practicing the plans and observing the changes made, examining the results and modifying the plans, and repeating the process with action research module. The data of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by using 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 taking photos and videos, having an interview and writing journals. The collected data were divided into types and analyzed into categories.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some of younger pupils in "Sae Ssac" mixed ages group showed less participation in cooking activity due to the difficulties of keeping their safety and verifying the level of their abilities. With this problem, they were just mimicking the cooking activity of teachers rather than enjoying the cooking class. Also there was a socializing problem between different age groups as a result of making too much focus on dividing groups by the same ages and abilities. They rarely got a chance to interchange their opinions with different age groups during the activity so that made them difficult to feel the unity. To solve the problems above, we provided more chances for younger pupils to participate and suggested more creative cooking activities they could try.

Second, the pupils in "Sae Ssac" class showed difficulty of harmonizing due to their different ages. To improve this situation, we divided the pupils into smaller groups of mixed ages rather than dividing them into same ages. Because there was an expectation of having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pupils when they had more opportunitie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lso there was a plan for "Sae Ssac" class to feel becoming one community by helping each other. Providing chances for older pupils to help younger pupils while they were participating the cooking activities.

Third, the pupils accepted the differences of their abilities by ages positively while they were learning cooking and also learned to be proud of the group they were in. This also encouraged the older pupils to give a good example to the younger pupils and younger pupils to respect the older pupils as their "little teachers". Then, they started to help each other voluntarily. In conclusion, by participating in the cooking activities, the pupils learned to consider and offer a help to the friends who were


less capable but same ages. And they realized the enjoyment of harmonizing and their equality between groups gradually. With their confidence of achievement they started to be proud of them and form a unity. They also began to understand each other by sharing the dishes they made. In this way, finally pupils in "Sae Ssac" class could form a sound community of their own through experiencing cooking and interchanging their emotions.

부 록


<요리활동계획안>

1. 고구마 경단
2. 유부초밥
3. 미니피자
4. 김치전
5. 계란 후라이
6. 햄버거
7. 견과류 강정
8. 어묵꼬치



< 부록 > 요리활동계획안 1

활동명	고구마 경단		
활동목표	고구마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관심 가진다. 동그라미의 성질에 대해 안다. 요리를 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활동형태	요리활동	집단형태	개별
활동자료	요리 순서 PPT, 요리 재료(고구마, 우유, 호두, 아몬드, 카스테라빵), 요리 도구(볼, 국자, 접시, 그릇, 쟁반, 채, 냄비, 전기레인지)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집단으로 모여 오늘의 요리에 관한 PPT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2. 고구마를 직접 만져보며 탐색해 본다. 3. 모듬별로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ㄷ자 형으로 모여 앉는다. 4. 익은 고구마를 관찰하고, 볼에 넣고 으갠다. 5. 요리 방법과 요리 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자리로 이동한다. 6. 고구마 경단을 다 만든 유아는 앞에 있는 카스테라 가루에 묻혀 완성한다. 7. 손을 씻고 자기 자리를 정리한다. 		
활동모습			
사후활동	구슬 그림 그리기		



< 부록 > 요리활동계획안 2

활동명	유부초밥		
활동목표	유부에 밥을 넣기 전과 후의 모양을 비교해 본다. 오감을 이용하여 재료를 탐색해 본다. 요리를 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활동형태	요리활동	집단형태	개별
활동자료	요리 순서 PPT, 요리 재료(유부, 밥, 소스, 야채가루), 요리 도구(접시, 그릇, 포크)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집단(ㄷ자형)으로 모여 오늘의 요리에 대해 알아본다. 2. 교사는 직접 유부초밥 만드는 방법을 시범 보인다. 3. 모둠별로 이동하여 개별 접시에 담긴 재료들을 탐색해 본다. 4. 밥에 재료를 넣고 잘 섞는다. 5. 동그랗게 만들어 유부에 넣어 본다. 6. 완성된 유부초밥은 자리에 두고 손을 씻고 자리 정리를 한다. 7. 요쿠르트와 함께 유부초밥을 간식으로 먹는다. 		
활동평가			
사후활동	모래 모양 찍기		


< 부록 > 요리활동계획안 3

활동명	미니피자		
활동목표	피자를 두 조각, 네 조각으로 나누어 본다.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요리해 본다. 요리를 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활동형태	요리활동	집단형태	개별
활동자료	요리 순서 PPT, 요리 재료(식빵, 토마토소스, 옥수수, 햄, 양파, 피망, 모짜렐라치즈), 요리 도구(접시, 그릇, 포크, 플라스틱 칼)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집단으로 모여 오늘 요리에 대해 PPT를 보며 이야기 나누어 본다. 2. 개별 재료를 가지고 모둠으로 이동한다. 3. 각각의 재료를 탐색해 본다. 4. 식빵에 소스를 편다. 5. 재료를 올리고, 마지막에 치즈를 뿌린다. 6. 두 명씩 전자렌지에 넣고 익힌다. 7. 전자렌지에서 음식이 익는 것을 보며 이야기 나누어 본다. 8. 피자를 두 조각이나 네 조각으로 자른 후 시식해 본다. 9. 다 먹은 유아는 간식 도구와 자리를 정리한다. 		
활동평가	 		
사후활동	식빵 얼굴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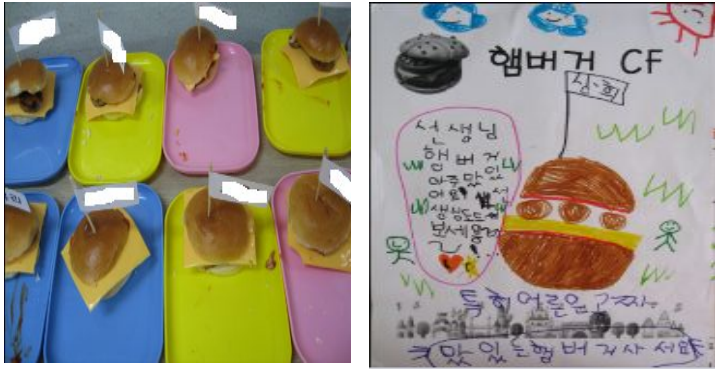
< 부록 > 요리활동계획안 4

활동명	김치전		
활동목표	김치전의 색깔을 알아본다. 모듬이 함께 요리해 본다. 요리를 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활동형태	요리활동	집단형태	대집단
활동자료	요리 순서 PPT, 요리 재료(김치, 부침가루, 물, 식용유), 요리 도구(접시, 그릇, 포크, 플라스틱 칼, 뒤집개)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듬별로 모여 김치와 부침가루반죽을 관찰해 본다. 2. 모듬별로 김치 반죽을 만들어 본다. 3. 후라이 팬에 식용유를 두른다. 4. 한 모듬에 두 개씩 김치전을 부친다. 5. 모듬별로 김치전을 식힌다. 6. 요리한 자리를 정리한다. 7. 김치전을 잘라 나누어 먹는다. 8. 다 먹은 유아는 간식 도구와 자리를 정리한다. 		
활동평가	 		
사후활동	배추인형그림		



< 부록 > 요리활동계획안 5

활동명	계란 후라이		
활동목표	계란 후라이가 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내가 직접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본다. 요리를 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활동형태	요리활동	집단형태	개별
활동자료	요리 순서 PPT, 요리 재료(계란, 식용유), 요리 도구(접시, 그릇, 포크, 뒤집개)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자유선택 놀이 시간에 두명씩 불러 요리를 한다. 2. 계란을 탐색해 본다. 3. 후라이 팬에 식용유를 두른다. 4. 계란을 깨서 후라이 팬에 넣는다. 5. 계란이 익는 모습을 관찰한다. 6. 유아가 직접 뒤집어 본다. 7. 다 익으면 개별 접시에 담는다. 8. 요리 영역을 정리하고 간식을 먹는다. 9. 다 먹은 유아는 간식 도구와 자리를 정리한다. 		
활동평가			
사후활동	계란 후라이 신체표현		


< 부록 > 요리활동계획안 6

활동명	미니 햄버거		
활동목표	미니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를 알아본다. 미니 햄버거를 만들어 본다. 요리를 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활동형태	요리활동	집단형태	개별
활동자료	요리 순서 PPT, 요리 재료(빵, 고기, 치즈, 피클, 양상치, 케찹), 요리 도구(접시, 그릇)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ppt로 햄버거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2. 개별접시에 재료를 담아 나누어 준다. 3. 유아들이 미니 햄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한다. 4. 다 만든 햄버거는 간식 코너에 둔다. 5. 자기 자리를 정리한다. 6. 햄버거를 나누어 주고 간식으로 먹는다. 7. 다 먹은 유아는 간식 도구와 자리를 정리한다. 		
활동평가			
사후활동	햄버거 CF		

< 부록 > 요리활동계획안 7

활동명	견과류 강정		
활동목표	견과류에 대해 알아본다. 모듬이 함께 견과류 강정을 만들어 본다. 요리를 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활동형태	요리활동	집단형태	소그룹
활동자료	요리 순서 PPT, 요리 재료(땅콩, 잣,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물엿), 요리 도구(접시, 그릇, 후라이팬, 식용유, 쿠키모양틀)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듬별로 모여 견과류를 탐색해 본다. 2. 견과류를 볼에 담아 섞는다. 3. 후라이팬에 견과류를 넣는다. 4. 물엿과 함께 섞는다. 5. 굳기 전에 모양틀이나 쟁반에 담는다. 6. 강정이 잘 굳도록 서늘한 곳에 둔다. 7. 요리 영역을 정리한다. 8. 굳은 강정을 관찰하고 개별 접시에 담는다. 9. 간식으로 먹는다. 10. 다 먹은 유아는 간식 도구와 자리를 정리한다. 		
활동평가	 		
사후활동	이것은 무엇일까요? 퀴즈		

< 부록 > 요리활동계획안 8

활동명	어묵꼬치		
활동목표	따뜻한 음식에 대해 알아본다. 어묵에 꼬치를 끼워본다. 요리를 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활동형태	요리활동	집단형태	소그룹
활동자료	요리 순서 PPT, 요리 재료(어묵, 꼬치, 무, 대파, 멸치), 요리 도구(접시, 그릇, 냄비, 국자, 수저)		
활동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묵 꼬치 PPT를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눈다. 2. 개별 접시에 재료를 나누어 준다. 3. 어묵을 꼬치에 꽂아 본다. 4. 모둠별로 준비된 냄비에 어묵꼬치를 담는다. 5. 어묵 꼬치를 익힌다. 6. 개별 접시에 어묵을 꺼내 나누어 준다. 7. 간식으로 먹는다. 8. 다 먹은 유아는 간식 도구와 자리를 정리한다. 		
활동평가			
사후활동	어묵꼬치가게 놀이		